



[9 8 VLC] 저녁집회 - 꿈을 가진 지도자

[본문 / 창 37 : 5 ~ 11] 하용조 목사 / 1998

요셉은 꿈을 꾸면서부터 큰 대가를 치르고 외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 반면, 그 꿈을 이룰 때까지는 기가 막힌 외로움과 고독과 싸워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처럼 불 속에,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야 했습니다. 환영받지도, 칭찬받지도, 이해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서원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 때는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길이고 꿈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셨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외롭고 고독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정상입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환경을 스케치 해보겠습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17살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7세라면 사춘기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요셉의 가정환경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입니다. 부인이 둘이란 것도 복잡한데 부인의 몸종인 빌하와 실바라는 첩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서 아이를 열 둘이나 낳았습니다. 배다른 형제 열 둘 중에 하나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힘들고 복잡했겠습니까? 그런데다 아버지 야곱은 머리회전이 빠르고, 비겁하고, 부인도 도망가버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출생에서부터 이익이 생긴다면, 형님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장자권도 도둑질 해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했을 때도 무책임하게 내팽개쳤습니다. 야곱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결코 우리가 모델로 삼을 만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요셉이 태어났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요셉을 생각하면 늘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요셉은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혹시 고아원에서 자랐거나, 부모 없이 자랐거나,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자랐던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납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는 성인이 될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한 번도 편안할 날을 주지 않았고, 한 번도 그를 축복해주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에게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움은 지독했습니다. 3, 4 절을 보십시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가족에게 받는 고통입니다. 요셉은 이런 고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형들은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는 외국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이르러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구덩이에 들어갈 때나, 애굽에 팔려갈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으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고통은 겪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지나가는 사건으로 여겨버리고 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통은 겪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비록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감옥에 집어 넣었다 할지라도 그는 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갖되, 고통을 받되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꿈

5~9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꿈의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꿈의 내용을 얼마나 재미있게 들었습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도 불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꿈을 자기와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누구와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누가 높고, 누가 낮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비교를 합니다. 당신 교회는 크고 내 교회는 작고, 당신 목회는 훌륭하고 내 목회는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갈등은 바로 이 '비교'에서 생깁니다.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보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질투와 분노와 시기로 가득칩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 된단 말인가?' 그는 동방박사들에게 메시아를 찾으려면 연락을 해달라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때 헤롯은 두 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 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라이벌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망가지고, 여러분의 꿈이 변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때 우리들은 우쭐해 지기도 하고, 비참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해석을 하게 되었고, 어리석은 해석은 급기야 핍박을 하게 하고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경쟁하거나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평생 괴롭히는 것이 '경쟁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고독하고 외롭지 않습니다. 10명이 모였든 20명이 모였든, 10년을 했든 20년을 목회했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다 라고 믿고 시작했다면 그 자리가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몇 사람을 위해 생애를 바치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처럼, 헤롯 왕처럼 자신의 자리를 차지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면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비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려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장로로 부름을 받았고, 목사로, 교회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어떤 분은 가까스로 살림을 꾸려나갑니다. 장로로서 헌금도 많이 드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의 비밀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 감정의 상처를 받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형들과 요셉을 보고 '꿈 꾸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별명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현실 가운데는 아무 것도 없어도 뭔가 될 것 같은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환상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환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형들보다 잘났다는 이야기도 아니요, 그것은 부모님보다 잘났다는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13년 후에 일어날 큰 사건을 미리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목회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취감이 없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인들이 떠났다고 배신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축복하며 보내주십시오. 그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해야 하고, 팔려가기도 해야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해야 하고, 오해를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길이요, 목회자의 길이요, 비전을 가진 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교회지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예수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희생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의 비밀을 깰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이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나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십시오,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누가 배신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습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시도하며 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다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회를 시작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았던 사람 요셉, 이것이 여러분의 자화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출처 - 온누리신문